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9.

제5권 제1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y

1999. Vol. 5, No. 1.

정형물리치료 강의평가 분석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김근조

Evaluation of lecture delivered by O.M.T. on the subject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Dept. of Physical Therapy, Kim Cheon College.

Kim Keun Jo, RPT, MA.

-ABSTRACT -

This evaluation was made through 1219 persons who had attended the lecture organized by O.M.T. (Orthopeadic Manual Therapy)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to December 1998 in Seoul and in other 11 cities. The result of evalu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

1. With regard to general satisfaction with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919 person(75.6%) for 'Preparation for lecture of lecturer' and by 969 person (71.4%) for 'Teaching Method' .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Couse and Preparation for Lecture of Lecturer' and 'Preparation for Lecture as per each Lecturer' ($P < 0.001$).

2. With regard to understanding of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en good' by 675 persons(55.4%) for 'Appropriate Degree of Lecture Difficulties' .

Statistically, the sin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Appropriateness of Teaching Courses and Degree of Lecture Difficulties' ($P < 0.001$).

Degree of Lecture Difficulties' ($P < 0.001$).

3. With regard to satisfaction with lecture's performanc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969 persons(87.7%) for 'Lecturer's Zeal for Teaching" and by 751 persons(61.6%) for 'Suitability of Textbook' .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Sex Distinction and Lectuer's Zeal for Teaching' ($P < 0.001$) and 'Lecturer and Suitability of Textbook' ($P < 0.001$).

4. With regard to teaching environment,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464 persons(38.2%) for 'Appropriateness of Teaching Environment' and by 751 persons(61.8%) for 'Provision of Appropriate Audio-Visual Aids for Teaching' .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Place and Appropriateness of audio-visual aids for Teaching' ($P < 0.001$).

5. With regard to parctical use of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805 persons(67.5%) for 'Usefulness to clinical demonstration' and by 873 person(71.7%) for 'Attitude towards study' .

With the result of evaluation made as in the above, we are able to see that the education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which is organized by Orthpedic Physical Therapy Society of Korea, is being successfully conducted and evaluated by its members, and furthermore the staff of this society has to make his best endeavours for the growth of this society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education.

서 론

물리치료는 임상에서 환자 및 장애인에게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물리적인 요인을 사용하여 환자와 장애인을 최대로 복구시키는 치료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물리치료는 운동. 전기. 광선. 수 치료 그리고 도수를 이용한 치료법 등 여러 분야가 서로의 특색에 맞게 구성되어 환자치료에 현재 임하고 있다.

이중 운동치료의 분야는 그 동안은 일반적으로 Physiological한 요인을 이용하여 치료에 임하였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운동치료의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경계통의 운동치료와 정형계통의 운동치료로써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뉘기 시작하여, 이들이 각기의 특성에 맞는 많은 종류의 새로운 치료의 개념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물리치료사들은 새로운 치료의 기법을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이와 같이 공부한 물리치료사들은 임상의 환자와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많은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새롭게 물리치료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기술 중 정형의학계통에서는

1992년 도수를 이용하는 '정형물리치료 (O.M.T.)' 의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최근 3년 전부터 이 기술을 전국의 물리치료사들에게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임상에서 새로운 치료의 개념으로 정착되어짐과 더불어 각 대학의 정규의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어 이미 각 대학에서 교육과 실습에 임하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정형물리치료는 최근의 수년사이 회원의 수가 증가되어 1999년 9월말 현재로 431여명의 회원이 1879번의 교육번호 등록되어 이들은 정형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각 과정과 코스의 이수로써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임상의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개발을 통하여 더불어 현재의 경제난국인 I.M.F. 체제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목적은 1998년 상반기인 1월부터 12월까지 정형물리치료 회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받은바, 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신뢰성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또한 개선을 하여 한 층 더 보다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이 목적이이다.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199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14개소의 교육지역에서, 13명의 교육강사와 실습강사가 기본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7개의 각 코스로 분류하여 각과정의 코스를 강의와 실습을 받는 교육과정의 정형물리치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회원들에게 강의 후 평가지를 1219매를 회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각 단계의 코스별 정형물리치료 교재에 첨가되어있는 평가지를 강의 후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 1219장을 회수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각 변수별 분포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에 따른 χ^2 -test 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제한점

조사의 제한점으로는 평가지의 회수가 전 강사가 참여치 않았고, 회수의 지역이 전국적이지 않았으며 교육의 단계별과 코스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의 응답이 미기록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조사결과

일반적 특성

본조사의 참여지역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국의 14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었다. 그리고 평가지의 수거 매수는 1219 장 이였다 (표 1-1).

표 1-1) 과 같이 본 조사의 참여율은 14개의 지역이 였으나 이들중 12개 지역이 참여하여 서울 245명 (20.1%), 전주 200명(16.4%), 원주 159명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총강의 등록번호 1879호 중 설문에 참여한 회원 중 1219 매 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의 참여 강의수준 과정은 기본과정의 총이수자 1336명 중 기본과정 1038매 그리고 중급과정의 총이수자 543명 중 181매의 참여로 나타나서 총 1219매 가 회수되었으며, 각 코스별로는 기초과정의 A.B.C.D.E.F.S.의 7개 와 중급과정 코스 MA MB MC MD ME MF MG MF 의 8개 코스가 개설되어 각 코스마다 강의 후 강의평가서를 수집하였다. 기본 코스의 A코스 이수번호 1643번 중 397매, B코스

표 1-1) 조사의 참여지역과 설문지 수거율 분포

지역	수거매수(%)	지역	수거매수(%)
1. 서울	245 (20.1)	8. 부산	57 (4.7)
2. 전주	200 (16.4)	9. 진주	50 (4.1)
3. 대구	96(7.9)	10. 성남	
4. 경남	.	11. 원주	159(13.0)
5. 대전	43(3.5)	12. 강릉	85 (7.0)
6. 울산	19(1.6)	13. 서산	70 (5.7)
7. 인천	69(5.7)	14. 광주	116 (9.5)
		15. 무용답	10(0.8)
Total			1219 (100.0)

1088번 중 162매, C코스 1078번 중 165매, D코스 913번 중 71매, E코스 959번 중 138매, F코스 846번 중 75매, S코스 700번 중 43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증급코스의 경우에는 MA코스 69매, MB코스 15매, M-C코스 9매, M-E코스 33매, M-G코스 37매, M-H코스 5매가 본 조사에 총 1219매가 수거되었다.

정형물리치료 교육 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남·여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이 남자회원 405명(33.2%), 여자회원 471명(38.6%), 그리고 미기재 343명(28.1%)로 나타났으며, 여자회원의 교육 참가율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표 1-2) 조사대상 회원의 남·여별 분포

성별	수거매수(%)	(실질수거 %)
남	405(33.2)	(46.2)
여	471(38.6)	(53.8)
미기재	343(28.1)	
Total	1219(100.0)	(100.0)

교육 후 본조사의 참여한 회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이 30세이하 607명(49.8%), 31~40세 202명(16.6%), 41세 이상 21명(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용답 389명(31.9%)이었다. 이들 중 30세 이하의 교육 참가율이 607명(49.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조사대상 회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	수거매수(%)	(실질매수 %)
≤ 30	607(49.8)	(73.1)
31 ~ 40	202(16.6)	(24.3)
41 이상	21(1.7)	(2.5)
미기재	389(31.9)	
Total	1219(100.0)	(100.0)

정형물리치료 교육 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들의 근무처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의원급 503명(41.3%), 병원급 171명(14.0%), 종합·대학병원급 139명(11.4%), 기타 16명(1.3%), 무용답 390명(32.0%)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의 근무자들이 높은 교육의 참가율을 나타냈다(표 1-4).

표 1-4) 조사대상 회원의 근무처 분포

근무처	수거매수(%)	(실수거매 %)
의원급	503(41.3)	(60.7)
병원급	171(14.0)	(20.6)
종합·대학병원급	139(11.4)	(16.8)
기타	16(1.3)	(1.9)
미기재	390(32.0)	
Total	1219(100.0)	(100.0)

기타 : 보건소, 학교 근무자

정형물리치료 교육 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들의 근무기간의 분포는 5년이하 566명(46.4%), 6-10년 185명(15.2%), 11-15년 47명(3.9%), 16년 이상 15명(1.2%) 그리고 미기재 406명(33.3%)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년 이하의 경력자들이 566명(46.4%)의 높은 교육 참가율을 나타내었다(표 1-5).

표 1-5) 조사대상 회원의 근무연수 분포

근무년수	수거매수(%)	(실수거매 %)
≤ 5	566(46.4)	(69.6)
6 ~ 10	185(15.2)	(22.8)
11 ~ 15	47(3.9)	(5.8)
16 ≤	15(1.2)	(1.8)
미기재	406(33.3)	
Total	1219(100.0)	(100.0)

강의 만족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만족도'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 항목으로 회원들에게 설문을 문 1)의 "강의 시간의 적절성", 문 2)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가 적절성", 문 3)항의 "강사교수법은 적절성"에 대한 분

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2-1).

표 2-1과 같이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문 1)항의 '강의시간의 만족성'에서 '보통이다' 811명(66.5%), '잘되었다' 300명(2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 2)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한 항목은 '잘되었다' 710명(58.2%), '보통이다' 267명(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 3)항의 '강사의 교수법'에 대한 항목에서는 '잘되었다' 659명(54.1%), '보통이다' 294명(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 만족도에서 '강의시간'과 '강의 코스'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우 유의하였다(표 2-2).

강의의 만족도에서 '강사'와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우 유의하였다(표 2-3).

강의 이해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 이해도'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 5)항인 '강의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3-1).

강의이해도에 대한 조사중 문 5)항인 '강의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되었다' 597명(49.0%), '보통이다' 437명(3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이해도에 대한 조사중 '코스'와 '강의난이도의 적절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3-3).

강사의 만족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간접

표 2-1) 강의 만족도에 대한 분포

문항	강의시간(%)	강의준비성 (%)	강사의 교수법 (%)
① 매우 잘되었다	15(1.2)	209(17.1)	210(17.2)
② 잘되었다	300(24.6)	710(58.2)	659(54.1)
③ 보통이다	811(66.5)	267(21.9)	294(24.1)
④ 안되었다	84(6.9)	29(2.4)	52(4.3)
⑤ 매우 안되었다	7(0.6)	1(0.1)	2(0.2)
미기재	2(0.2)	3(0.2)	2(0.2)
Total			1219(100.0)

표 2-2) 강의시간 과 강의코스별 분포

코스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미기재(%)	Total
A 코스	4(1.0)	89(22.4)	259(65.2)	41(10.3)	4(1.0)		397(100.0)
B 코스		33(20.6)	119(74.4)	8(5.0)			160(100.0)
C 코스	2(1.2)	30(18.2)	129(78.2)	4(4.8)			165(100.0)
D 코스	2(2.8)	14(19.7)	45(63.4)	10(14.1)			71(100.0)
E 코스	3(2.2)	55(39.9)	76(55.1)	2(1.4)	2(1.4)		138(100.0)
F 코스		13(17.3)	47(62.7)	15(20.0)			75(100.0)
S 코스		8(18.6)	33(76.7)	1(2.3)	1(2.3)		43(100.0)
M-A	2(2.9)	26(37.7)	40(58.0)	1(1.4)			69(100.0)
M-B	1(6.7)	3(20.0)	10(66.7)	1(6.7)			15(100.0)
M-C		1(11.1)	8(88.9)				9(100.0)
M-E	1(3.0)	11(33.03)	21(63.6)				33(100.0)
M-G		16(43.2)	20(54.1)	1(2.7)			37(100.0)
M-H		1(20.0)	4(80.0)				5(100.0)
Total	15(1.2)	300(24.7)	811(66.6)	84(6.9)	7(0.6)		1217(100.0)

*** : P< 0.001 Chi-Square=115.937, D.F=48.

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 4) 항인 '강사의 열의도' 와 문 7) 항인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4-1).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중 문 4) 항의 '강사의 열의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되었다' 702명(57.6%),

'매우 잘되었다' 367명(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 7) 항의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는 '잘되었다' 660명(54.1%), '보통이다' 390명(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성별'과 '강사의 열의

표 2-3) 강사와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한 분포

강사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A	10(16.7)	36(60.0)	14(23.3)			60(100.0)
B	32(13.2)	156(67.9)	44(18.1)	2(0.8)		243(100.0)
C	43(12.2)	206(58.5)	88(25.0)	15(4.3)		352(100.0)
D	22(32.8)	40(59.7)	4(6.0)	1(1.5)		67(100.0)
E	2(7.7)	16(61.5)	7(26.9)	1(3.8)		26(100.0)
F	7(19.4)	19(52.8)	10(27.8)			36(100.0)
G	26(32.9)	49(62.0)	4(5.1)			79(100.0)
H	28(34.1)	49(59.8)	5(6.1)			82(100.0)
I	1(1.8)	11(19.7)	37(66.1)	7(12.5)		56(100.0)
J	13(30.2)	24(55.8)	6(14.0)			43(100.0)
K	1(4.5)	11(50.0)	8(36.4)	2(9.1)		22(100.0)
L	23(32.4)	42(59.2)	6(8.5)			71(100.0)
M	2(2.5)	41(51.9)	34(43.0)	2(2.6)		79(100.0)
Total	210(17.2)	709(58.4)	267(22.0)	30(2.5)		1216(100.0)

*** : P< 0.001, Chi-Square=263.367, D.F.=48

표 3-1) 강의 나이도에 대한 분포

문항	강의난이도의 적절성(%)
① 매우 잘되었다	78(6.4)
② 잘되었다	597(49.0)
③ 보통이다	437(35.8)
④ 안되었다	101(8.3)
⑤ 매우 안되었다	4(0.3)
미기재	2(0.2)
Total	1219(100.0)

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4-2).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강사'와 '강의교재의 적합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4-3).

강의환경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 후 '강의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6)항인 '강의환경의 적합성'과 문8)항인 '시청각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5-1).

강의환경에 대한 조사중 문6)항의 '강의 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통이다' 152명(50.7%), '잘되었다' 83명(27.7%), '매우 잘되었다와 안되었다' 29명(9.7%)의 순으로 각기 나타났다. 그리고 문8)항의 '시청각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잘되었다' 163명(54.3%), '보통이다' 85명(28.3%), '매우 잘되었다' 30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지역'과 '강의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표 3-3) 코스와 강의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

코스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A코스	17(4.3)	179(45.1)	154(38.8)	46(11.6)	1(0.3)	397(100.0)
B코스	12(7.5)	87(54.4)	54(33.8)	7(4.4)		160(100.0)
C코스	9(5.5)	89(53.9)	55(33.3)	10(6.1)	2(1.2)	165(100.0)
D코스	9(12.7)	43(60.6)	18(25.4)	1(1.4)		71(100.0)
E코스	12(8.7)	72(52.2)	42(30.4)	12(8.7)		138(100.0)
F코스	2(2.7)	19(25.3)	42(56.0)	12(16.0)		75(100.0)
S코스	5(11.6)	23(53.5)	14(32.6)	1(2.3)		43(100.0)
M-A	2(2.9)	39(56.5)	22(31.9)	6(8.7)		69(100.0)
M-B	1(6.7)	5(33.3)	5(33.3)	4(26.7)		15(100.0)
M-C	1(11.1)	5(55.6)	3(33.3)			9(100.0)
M-E	7(21.2)	18(54.5)	8(24.2)			33(100.0)
M-G	16(43.2)	19(51.4)	1(2.7)	1(2.7)		37(100.0)
M-H	1(20.0)	2(40.0)	1(20.0)	1(20.0)		5(100.0)
Total	78(6.4)	597(49.1)	437(35.9)	101(8.3)	4(0.3)	1217(100.0)

표 4-1)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분포

문 항	강사의 열의도(%)	강의교재의 적합성(%)
① 매우 잘되었다	367(30.1)	91(7.5)
② 잘되었다	702(57.6)	660(54.1)
③ 보통이다	138(11.3)	390(32.0)
④ 안되었다	9(0.7)	71(5.8)
⑤ 매우 안되었다	1(0.1)	3(0.2)
미기재	2(0.2)	4(0.3)
Total		1219(100.0)

표 4-2) 성별과 강사의 열의도에 대한 분포

성별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남	153(37.8)	211(52.1)	41(10.1)	.	.	405(100.0)
여	120(25.5)	285(60.5)	58(12.3)	8(1.7)	.	471(100.0)
Total	273(31.2)	496(56.6)	99(11.3)	8(0.9)	.	876(100.0)

** : P< 0.001, Chi-Square=21.096, D.F.=3.

표 4-3) 강사와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

강사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A	7(11.9)	39(66.1)	13(22.0)			59(100.0)
B	9(3.7)	166(68.3)	59(24.3)	9(3.7)		243(100.0)
C	29(8.2)	188(53.4)	119(33.8)	15(4.3)	1(0.3)	352(100.0)
D	5(7.5)	34(50.7)	22(32.8)	6(9.0)		67(100.0)
E	3(11.5)	11(42.3)	12(46.2)			26(100.0)
F	7(19.4)	19(52.8)	10(27.8)			36(100.0)
G	10(12.7)	45(57.0)	21(26.6)	3(3.8)		79(100.0)
H	11(13.4)	39(47.6)	18(22.0)	13(15.9)	1(1.2)	82(100.0)
I	1(1.8)	20(35.7)	33(58.9)	2(3.6)		56(100.0)
J	2(4.7)	16(37.2)	22(51.2)	3(7.0)		43(100.0)
K	1(4.5)	12(54.5)	9(40.9)			22(100.0)
L	8(11.3)	46(64.8)	16(22.5)	1(1.4)		71(100.0)
M	1(1.3)	33(41.8)	37(46.8)	7(8.9)	1(1.3)	79(100.0)
Total	91(7.5)	660(54.3)	390(32.1)	71(5.8)	3(0.2)	1215(100.0)

*** : P< 0.001 , Chi-Square=207.433, D.F.=48.

표 5-1) 강의 환경에 대한 분포

문 항	강의환경의 적합성(%)	시청각교재의 적절성(%)
① 매우 잘되었다	89(7.3)	91 (7.5)
② 잘되었다	375 (30.8)	660 (54.1)
③ 보통이다	577 (47.3)	390 (32.0)
④ 안되었다	158 (13.0)	71 (5.8)
⑤ 매우 안되었다	16 (1.3)	3 (0.2)
미기재	4 (0.3)	4 (0.3)
Total	1219(100.0)	1219 (100.0)

매우 유의 하였다(표 5-2).

강의의 실용성에 대하여

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9)항인 '임상의 도움성' 과 문10)항인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6-1).

강의 실용성에 대한 조사중 문9)항의 '임상의 도움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 실용성'에 대한 간접적 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되었다' 140명(46.7%),

표 5-2) 지역과 강의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

지역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서울	8(3.3)	68(27.8)	122(49.8)	38(15.5)	9(3.7)	245(100.0)
전주	3(1.5)	57(28.5)	109(54.5)	31(15.5)		200(100.0)
대구	8(8.3)	29(30.2)	44(45.8)	15(15.6)		96(100.0)
대전	3(7.0)	13(30.2)	22(51.2)	4(9.3)	1(2.3)	43(100.0)
울산	8(42.1)	11(57.9)				19(100.0)
인천	10(14.5)	29(42.0)	24(34.8)	6(8.7)		69(100.0)
부산	7(12.5)	15(26.8)	25(44.6)	8(14.3)	1(1.8)	56(100.0)
전주	5(10.0)	13(26.0)	22(44.0)	10(20.0)		50(100.0)
원주	4(2.5)	47(29.6)	86(54.1)	22(13.8)		159(100.0)
강릉	12(14.3)	30(35.7)	33(39.3)	6(7.1)	3(3.6)	84(100.0)
서산	1(1.4)	16(22.9)	42(60.0)	10(14.3)	1(6.3)	70(100.0)
광주	27(23.7)	45(39.5)	33(28.9)	8(7.0)	1(0.9)	114(100.0)
Total	88(7.3)	370(30.7)	573(47.6)	158(13.1)	16(1.3)	1205(100.0)

*** : P< 0.001, Chi-Square= 144.261, D.F. = 44.

표 6-1) 강의 실용성에 대한 분포

문항	임상의 도움성(%)	회원의 학습태도(%)
① 매우 잘되었다	149 (12.2)	166 (13.6)
② 잘되었다	656 (53.8)	707 (58.0)
③ 보통이다	375 (30.8)	325 (26.7)
④ 안되었다	9 (0.7)	19 (1.6)
⑤ 매우 안되었다	3 (0.3)	.
미기재	27 (2.2)	2 (0.2)
Total	1219 (100.0)	1219 (100.0)

'보통이다' 100명(33.3%), '매우 잘되었다' 32명(10.7%)의 순으로 각기 나타났다. 그리고 문10) 항의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한 분포는 '잘되었다' 160명(53.3%), '보통이다' 84명(28.0%), '매우 잘되었었다' 49명(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을 임상의 물리치료사들에게 교육을 시작한지 대략 3년여 동안에 물리치료계에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은 'Manual 치료'의 도입이다.

이는 과거의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더욱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임하여 치료사 자신은 전문인으로써의 궁지와 더불어 치료의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본 정형물리치료 교육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에서는 '서울' 이외 '전주', '대구', '경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진주', '성남', '원주', '강릉', '당진', '광주' 등의 전국의 13개의 시·도에서 강의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강의수준은 '기초단계' 1038(85.2%), '중급단계' 181(14.8%)로써 주로 기초단계의 회원의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각 기초단계의 단계별 강의코스를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E코스', 'F코스' 및 'X-Ray' 코스로 이루어졌고, 또한 중급단계의 경우에는 M-A, M-B, M-C, M-E, M-G, M-H의 각 코스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교육의 강사진은 14명의 주강사와 실습강사로 구성되어 강의를 실시하며, 본조사에 참여한 강사는 13명 이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1219매 이었다.

본 조사의 참여한 학회회원은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 동안 강의를 들은 회원 중 1219명의 회원의 '강의 평가지'를 회수하여 조사하였고, 이중 '남자' 405명(33.2%), '여자' 471명(38.6%), '미기재' 343명(28.1%)의 참여로 '여자' 471명(38.6%)의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연령층은 '30세미만' 607명(49.8%), '31-40세' 202명(16.6%), '41세 이상' 21명(1.7%), '미기재' 389명(31.9%)로 나타나서 '30세미만'이 607명(49.8 %)으로 가장 높은 교육의 열의를 나타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근무처는 '의원급' 503명

(41.3%), '병원급' 171명(14.0%), '종합-대학병원급' 139명(11.4%), '기타' 16명(1.3%)으로 나타났고, 무응답 390명(32.0%)이었으며, 주된 교육생은 '의원급' 503명(41.3%)로써 이들이 교육의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타'의 근무자는 보건소 및 학교의 근무자임이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임상경력은 '5년미만' 566명(46.4%), '6-10년' 185명(15.2%), '11-15년' 47명(3.9%), '16년 이상' 15명(1.2%)로써 나타났고, 임상의 경력이 낮은 '5년미만' 566(46.4%)의 임상경력자가 교육의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강의 평가서'의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으로써

문1항)의 '강의시간의 적절성'에서는 '적절하다' 811(66.5%)로 나타내어 과반수 이상이 강의시간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짧다' 300(24.6 %)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길다' 91(7.5%)이 나타났다.

문2) 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하여는 '잘되었다' 710(58.2%)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이, '매우 잘되었다' 까지 포함하면 209(75.6%)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문3) 항의 '강의 교수법이 내용전달에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그렇다' 659명(54.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통이다' 294명(24.1%)으로 나타나 강의교수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4) 항의 '강사의 열의성'에 대하여는 '그렇다' 702(57.6%), '매우그렇다' 367(30.1%)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므로 1069(87.8%)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문5) 항의 '강의 난이도와 진행속도가 적절하였나?'에 대하여는 '그렇다' 597(49.0%)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통이다' 437(35.8%)가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6) 항의 '강의환경 및 시설'에 대하여는 '보통이다' 577(47.3%)로 나타났고, '매우 좋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89(7.3%), 16(1.3)으로 나타났다. 문7) 항의 '강의교재가 강의내용과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그렇다' 660(54.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90(32.0%)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8) 항의 '강사의 시청각 자료의 적합한가?'에 대하여는 '그렇다' 678(55.6%)와 '보통이다' 309(25.3%)으로써 긍정적이었다.

문9) 항의 '본 코스의 참석후 임상의 도움'에 대하여는 '좋다' 656(53.8%)와 '보통이다' 375(30.8%)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10) 항의 자신들의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좋다' 707(58.0%)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325(26.7%)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조사는 정형물리치료 강의를 서울 외 11지역의 시.도에서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 후 강의에 대한 평가서를 1219매를 수거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서 919명(75.6%), '강의교수법'에서 969명(71.4%)으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강의코스와 강의시간' 그리고 '강사별과 강의준비'에서 각각 매우 유의하였다($P<0.001$).

2. 강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의난이도 적절성'에서 675명(55.4%)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강의코스와 강의난이도 적절성'에 서 각기 매우 유의하였다($P<0.001$).

3.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되었다' 이상이 '강사의 열의성'에서 969명(87.7%)과 '강의교

재 적합성'에서 751명(61.6%)으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성별과 강사의 열의도' ($P<0.001$)와 '강사와 강의교재 적합성' ($P<0.001$)로 각기 매우 유의하였다.

4. 강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의환경의 적합성'에서 464명(38.2%), '시청각자료 적합성' 751명(61.8%)으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지역과 강의자료 적합성'에서 매우 유의하였다($P<0.001$)

5. 강의의 실용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좋다' 이상이 '임상에 도움'이 805명(67.5%), '학습태도' 873명(71.7%)으로 각기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써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에서 실시하는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은 회원들에게 성공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정형물리치료학회의 임원들은 더욱 큰 책임감으로 교육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이호배, 이성근, 배수현 : 기초통계분석, 데이터리서치, 서울, p.21-139, 1994.
최종석 외 3인 : 통계학, 정의사, 서울, p.9-310, 1989.
한성현, 신동철 : 보건과학연구방법론, 수문사, 서울, p.16-122, 1996.
홍경선 : SAS 와 통계자료분석, 탐진, 서울, p.162-271, 1996.